# 금융

Sector Issue Brief 2026. 04. 20

# 은행과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 관련

## Check Point

-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 발표
- 위험계수 조정을 통한 생산적금융 확대
- 자본비율 상승영향은 주주환원 관점에서 일부 긍정효과 예상

| Analyst 전배승 | bsjun@ls-sec.co.kr

## 은행/보험업계 위험계수 조정을 통한 생산적 금융 자금공급 확대 취지

▶ 지난주 금융당국은 생산적금융을 위한 은행과 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

▶ 은행권의 경우 기존 확정된 4가지 자본규제 개선방안(주담대 RW 상향, 주식 RW 하향, 정책펀드 RW 특례,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이외에도 1)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 2)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확대, 3) 내부등급법 승인기간 단축을 추가

▶ 1)은 대규모 손실사건(보상금, 과징금 등) 발생에 따른 운영리스크 산출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는 시장리스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는 외환포지션을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지점 이익잉여금으로 확대하는 것. 이는 최근 ELS/LTV 과징금 부과 및 환율상승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에 따른 영향을 일정부분 보완하고, 향후 생산적금융 지속확대를 위한 기업대출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 보험업권에 대해서도 주식/지분투자/펀드의 위험액 감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 장기투자 및 신재생/AI 등 인프라 지분투자를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계수는 상향. 또한 내부등급법 도입, 유동성프리미엄 산출기준 개선을 통해 킥스비율 체계를 개선해 보험사의 투자여력을 확대하는 조치도 포함됨

## 자본비율 상승효과는 주주환원 관점에서 긍정적

▶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운영리스크 규제개선을 통해 5대 은행지주의 CET1비율이 최대 26bp상승하는 것으로 밝힘. 다만 2020~23년 기간 동안 4대은행의 평균 과태료(과징금 포함) 인식규모는 167억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되어(언론보도 기준), 3년 이상 인식한 손실사건을 운영리스크에서 차감한다 해도 CET1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1bp 내외로 미미한 것으로 자체적으로는 분석됨. 대신 ELS와 LTV 과징금의 경우 규모가 월등히 크고 CET1비율 영향도 평균 20bp 수준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어(감면율 0% 가정) 이 효과까지 감안한 것으로 추정됨

▶ 시장리스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CET1비율 최대 12bp 상승효과를 발표했으며, 해외 법인과 지점 규모가 큰 은행지주의 경우 실제로 CET1비율 +10bp 내외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결국 운영리스크와 시장리스크 개선방안을 종합해보면, 향후 발생가능한 과징금과 환율변동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축소시키고. 특히 1분기 중 환율상승으로 인한 CET1비율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이 유지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 보험업권의 경우도 주식/신용위험액이 감소하고, 내부모형 도입과 유동성프리미엄 산출기준 개선효과로 킥스비율 상승이 가능할 전망. 1분기 중 주요 상장 보험사들은 금리상승, 보유주식 평가익 등으로 킥스비율이 5~10%p 상승한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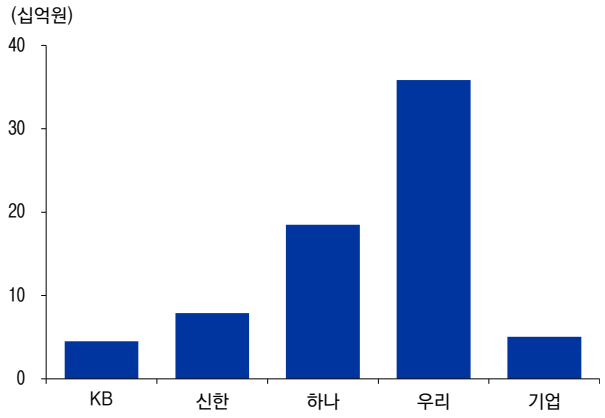
▶ 자본규제 개선의 취지가 생산적금융 관련 자금공급 확대(은행권 기업대출 +74.5조원, 보험권 인프라대출 +24.2조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증대된 자본여력이 주주환원 재원으로만 활용될 가능성은 낮음. 그럼에도 자본비율 상승효과가 예상된다는 측면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

그림1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방안

| 구 분 | 과제명 | 주요 내용 | 기대효과 | | 시행시기 |
|---|---|---|---|---|---|
| 완료 (4개) | ① 주담대 RW 상향[신용] | ◎ 내부등급법 주담대 RW 하한 상향(15%→20%) | ▷CET1 +23bp<br>▷기업대출 +80.7조원(최대) | | '26.1월 |
| | ② 주식 RW 하향[신용] | ◎ 비상장 주식 위험가중치 하향 | | | '26.3월 |
| | ③ 정책목적 펀드 RW 특례[신용] | ◎ 정책목적 펀드는 RW 100% 적용 | | | '26.3월 |
| | ④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시장] | ◎ 해외점포 출자금 시장리스크 제외 | | | '25.2월 |
| 신규 (3개) | ① 운영리스크 손실인식 합리화[운영1)] | ◎ 3년 이상 인식 손실사건 배제 | ▷CET1 +26bp | ▷기업대출 +74.5조원 (최대) | '26.4월 |
| | ②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확대[시장] | ◎ 해외 장기 지분투자, 해외점포 이익잉여금 | ▷CET1 +12bp | | '26.4월 |
| | ③ 내부등급법 변경승인 기간 단축[신용2)] | ◎ 신용평가모형 재개발시 신속 승인 | ▷CET1 +10bp | | 연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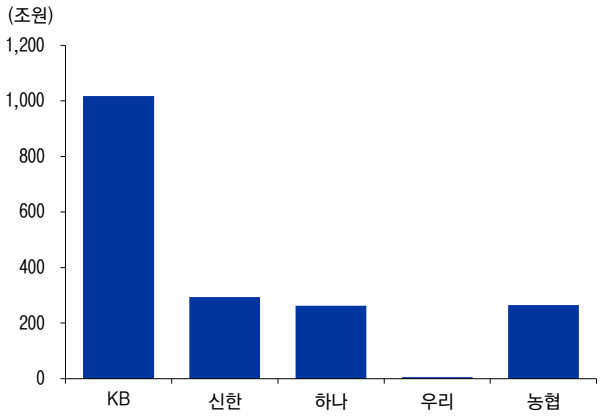
주: 1) 정량요건 충족하는 모든 손실사건 고려시(잠정), 2) 최근 사례 고려 시 변경승인 경우 +10bp 상승
자료: 금융위원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은행권 2020~23 년 과태료(과징금) 부과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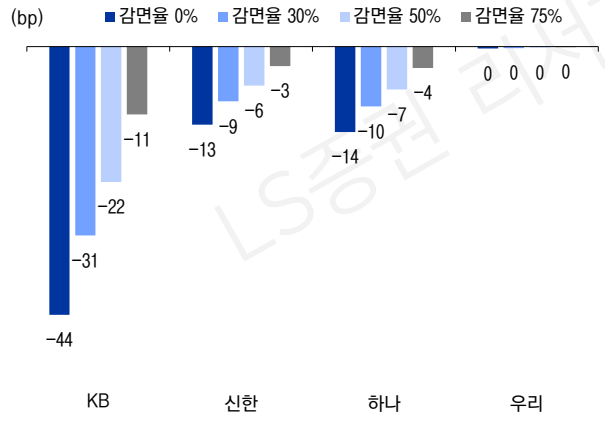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은행권 ELS 과징금 부과내역(사전통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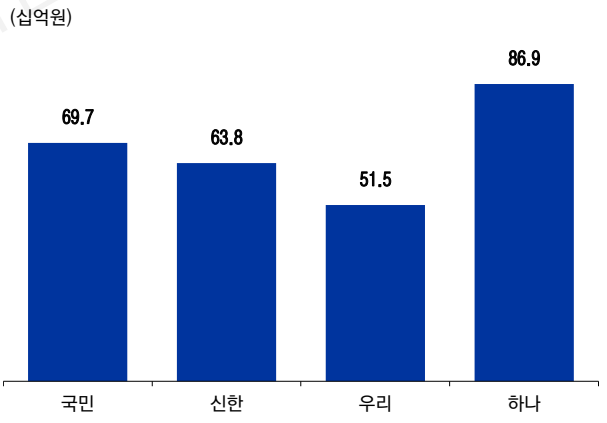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ELS 과징금 감면율에 따른 CET1 비율 영향 추정




자료: 언론보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은행권 LTV 과징금 부과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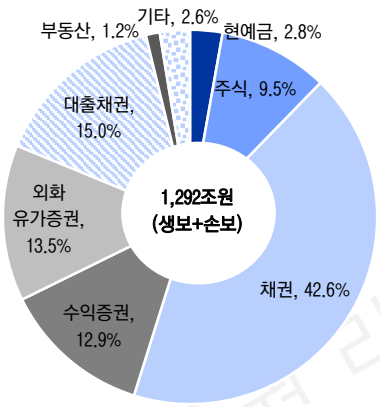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

| 구분 | | 내용 | 추진계획 |
|---|---|---|---|
| 위험계수 합리화 | **1. (주식·지분투자) 주식위험액 측정 합리화** | | |
| | ① **정책프로그램** 장기투자 시 위험계수 경감 | - **49%→20% 이하**<br>(펀드전체에 장기보유 특례(20%)와 위험경감효과 반영) | '26.2Q |
| | ② **적격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경감 | - **49%→35%**<br>(펀드전체에 상장주시 위험계수(35%) 적용) | '26.2Q |
| | ③ 위험경감이 적용되는 '**적격 인프라**' 범위 확대 | - **49%→20%**<br>(주식수준으로 적용되던 인프라 지분투자의 위험계수 경감) | '26.2Q |
| | **2. (대출·채권) 신용위험액 측정 합리화** | | |
| | ① **매칭조정**(Matching Adjustment) 제도 활성화 | - 미스 매칭률 요건 완화(현행은 100% 매칭 요구)<br>- 보험부채와 동일한 현금흐름을 보이는 장기투자 인센티브 부여 | '26.3Q |
| | ② 정부 등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 신용위험계수 경감 | - 정부 등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도 해당분 무위험(0%)으로 분류<br>(기존에는 전액보증시에만 무위험 부류) | '26.2Q |
| | **3. (펀드) 주식·신용위험액 측정 합리화** | | |
| | ① **레버리지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 개선 | - 유동성 관리 목적(차입기간 1년 이내) 명시시 레버리지펀드 제외<br>- 투자기간 종료 확인 시 해당시점의 실제 레버리지비율 적용 등 | '26.2Q |
| | ② 블라인드펀드 **미집행 약정** 위험액측정 합리화 | - 보험업권 실제 통계분석을 통해 신용환산율 도출해 위험액 반영 | '26.3Q |
| | **4. (부동산) 신용위험액 측정 합리화** | | |
| | ①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 합리화 | - LTV 60%~80% 위험계수를 3.5→4.0%로 상향 | '26.2Q |
| K-ICS비율 산출체계 정비 | **5. (전체) 보험사 투자여력 측정 정교화** | | |
| | ① 보험사 **내부모형** 도입 지원 | - 표준모형 외에 내부모형 승인기준 마련<br>▶추가 투자여력 확보 | '26.2Q |
| | ②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기준 개선 | - 수익증권 중 금리부 자산에 유동성프리미엄 반영(현재는 0)<br>▶추가 투자여력 확보 | '26.3Q |
| **위험계수 경감**을 통해 보험사의 **생산적 분야 자금공급 확대** 유도 ⇒ 본 제도개선을 통해 **인프라대출에 총 24.2조원 추가 자금공급 가능**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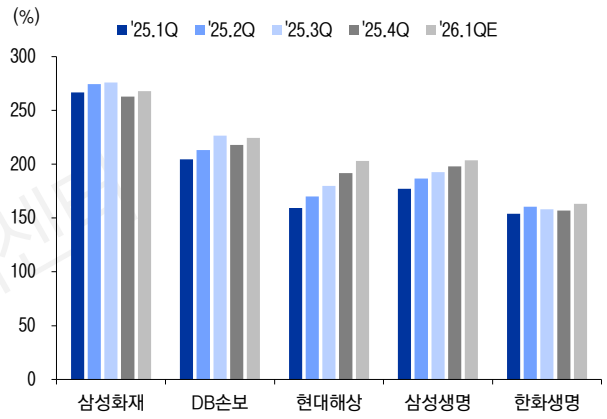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보험업권 운용자산 구성(2025.12)**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보험사별 킥스비율 추이**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배승).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 구분 | 투자등급 guide line<br>(투자기간 6~12 개월) | 투자등급 | 적용기준<br>(향후 12 개월) | 투자의견<br>비율 | 비고 |
|---|---|---|---|---|---|
| Sector<br>(업종) | 시가총액 대비<br>업종 비중 기준<br>투자등급 3 단계 | Overweight (비중확대)<br>Neutral (중립)<br>Underweight (비중축소) | | | |
| Company<br>(기업) | 절대수익률 기준<br>투자등급 3 단계 | Buy (매수)<br>Hold (보유)<br>Sell (매도) | +15% 이상 기대<br>-15% ~ +15%<br>-15% 이하 기대 | 89.3%<br>10.7% |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
| | | 합계 | | 100.0% | 투자의견 비율은 2025. 04. 01 ~ 2026. 03. 31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br>(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 |